지난해 집 산 광주 시민 늘었다…외지인 소유도 증가

자가 소유 46.7만 가구로 전년비 0.7% 늘어… '1주택' 86.4%
나주·담양·화순 등서 1만2천호 보유… '남구' 외지인 비율 최다

지난해 '내 집'을 마련한 광주시민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외지인의 광주 주택 소유 비율도 늘었는데 외지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지역은 광주시 남구였다.

'1주택'을 소유한 시민이 86.4%로 가장 많았고, 두 채를 가진 시민은 11%, 세 채와 네 채를 보유한 비율은 각각 1.7%, 0.4%에 불과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광주에서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46.7만 가구로 전년(46만호)에 견줘 0.7% 증가했다. 전남은 65.7만호에서 66만호로 늘었다.

광주지역 주택 가운데 광주시민(관내인)이 소유한 주택은 전년보다 5000호 증가한 40.7만호로 전체의 87.1%를 차지했다. 외지인이 소유한 주택은 6만호로(12.9%)로 작년(5.9만호)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외지인 소유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세종(30.2%), 충남(17.6%), 인천(17.1%) 등이었는데, 광주는 전국평균(13.6%)보다 낮은반면 전남(14.3%)은 높았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중 외지인이 소유한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남구였다. 남구의 외지인 주택 소유비율은 14%로 뒤이어 동구(13.5%), 서구(13.3%), 북구(12.6%), 광산구(12.1%) 순이었다.

광주지역 주택을 소유한 외지인의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상위 3곳 모두 전남 지자체였다.

가장 많은 곳은 나주로 전체의 8.1%(0.5만호)를 차지했고, 뒤이어 담양(0.4만호·6.1%), 화순(0.3만호·5.7%) 순이었다.

전남은 이와 반대로 외지인 소유자 거주지역 상위 3곳 모두 광주시 자치구였다. 북구 1만호(10.1%), 광산구 0.8만호(8.7%), 서구 0.7만호(7.8%) 순이었다.

광주에 주소를 둔 시민 중 주택을 가진 시민은 2021년 43만명에서 2022년 43.7만명으로 1.5%늘었고, 소유자의 성별은 남 22.5만명, 여 21.2만명으로 비슷했다.

전국적으로 주택 소유자는 1530.9만명이었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수는 1643.2만호로 주택 소유자 기준 1인당 평균 소유주택수는 1.07호로 조사됐다.

광주는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수가 1.08호로 부산(1.12호), 강원(1.12호), 충북(1.10호), 충남(1.11호), 전북(1.11호), 전남(1.10호), 경북(1.09호), 제주(1.13호) 등과 함께 전국평균보다 높았다.

지난해 광주지역 62.3만 가구 중 주택소유가구는 36.1만(57.9%)로 전년 35.5만(57.7%) 0.2%포인트 늘었다. 무주택 가구는 26.3만 가구였다.

전국을 기준으로 일반가구 2177.4만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223.2만 가구(56.2%)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무주택 가구는 954.1만 가구로 나타났다.

주택을 1건만 소유한 가구는 907.9만 가구로 74.2%를 차지, 2건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315.4만 가구로 25.8%를 차지했다.

주택 소유가구의 평균 주택수는 1.34호,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억 1500만원, 1호당 평균 주택면적은 86.7㎡, 가구주 평균 연령은 56.8세, 평균 가구원수는 2.58명이었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5인 이상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74.8%로 가장 높았고 1인 가구는 30.9%로 가장 낮았다.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와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각각 74.8%, 74.0%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한부모·미혼자녀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52.9%에 그쳤다.

상위 10%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12억1600만원이었고 하위 10%는 3000만원이었다. 상위 분위일수록 남성 가구주가, 하위 분위일수록 여성 가구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민석 기자 mskim@

"베트남 정통 요리로 전국구 브랜드 만들겠다"

비즈&피플 〈10〉 베트남 정통 요리 '브우디엔' 김명수 대표
광주 1호점 내고 갈비덮밥·오징어튀김 등 '현지 맛' 재현
아내 타오씨 자격증 보유 "음식·문화 스펙트럼 선사할 것"

"맛의 고장 광주에서 베트남 정통 파인다이닝을 선보이겠습니다."

14일 '브우디엔'(광주 서구 시청서편로4번길 19-22)에서 만난 김명수 대표는 "단순히 쌀국수라는 이미지로 소비되는 베트남 요리를 튀김, 덮밥, 해산물 등 다양화해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구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0월 광주 최대 상업지구인 상무지구에 브우디엔 1호점을 오픈했다. 브우디엔은 베트남어로 우체국이라는 뜻으로 그는 "베트남의 문화와 음식을 한국으로 전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역에서 정통 베트남 음식을 맛볼 수 없다는 생각에 베트남 전문 음식점을 개업했다. 그는 베트남에서 영화사업을 하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군대를 제대하고 베트남으로 향해 호치민대학교를 졸업하고 그곳에서 영화PD로 활동했다. 현지에서 베트남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 교육문제로 8년 전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에 돌아와 회사생활을 하다 고향인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맛의 고장 광주에 '진짜' 베트남 음식은 없다는 생각에 음식점 개업을 고민했고 브우디엔을 개업하게 됐습니다."

지금과 달리 과거에 중화요리가 짜장면과 탕수육으로 국한되던 것처럼, 현재 베트남 음식도 쌀국수만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그는 선입견을 깨고 정통 베트남 요리를 선보이기로 결심했다.

그렇기에 브우디엔 메뉴판에는 껌승(갈비덮밥), 믁 찐 손 띠우(오징어튀김), 쩨 타이 등 좀처럼 접하지 못했던 음식이름으로 가득하다.

김 대표는 인테리어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베트남 현지 느낌을 물씬 풍기기 위해 10차례 이상 베트남을 방문해 인테리어 소품을 공수해 왔다.

브우디엔의 총괄 셰프는 아내인 레람 응옥 타오씨다. 레람씨는 베트남에서 쌀국수, 분짜하노이, 껌승 국가기술자격증을 획득했다.

브우디엔을 찾는 손님들의 구성만 봐도 현지 맛을 그대로 구현해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표는 "현지 입맛에 맞는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더니 베트남 손님이 60% 정도다. 맛에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광주를 기반으로 브우디엔을 전국 프랜차이즈화할 계획이다.

"1호점을 시작으로 우선 광주와 전라권 모든 도시에 분점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광주·전남을 넘어 전국의 미식가들에게 넓은 음식·문화 스펙트럼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는 끝으로 "다문화가정이다 보니, 국내 베트남인들의 분위기 상승에도 일조하고 싶다"며 "광주에 거주중인 한-베 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계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명수(오른쪽) 브우디엔 대표와 아내 레람 응옥 타오씨가 식당 내부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 쌀 생산량 감소

올 73만7천t… 0.8% ↓

올해 벼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6% 줄었다. 전국 쌀 최대 산지이자 농도(農都) 전남의 쌀 생산량도 0.8% 감소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3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70만2000t으로 지난해보다 1.6%(6만2000t) 감소했다.

재배면적이 70만8012ha(헥타르·1만㎡)로 작년보다 2.6%(1만9042ha) 줄어든 영향이다. 올해 재배면적은 197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다.

재배면적은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다. 쌀이 잉여 작물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을 통해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만, 작년보다 기상여건이 좋아지면서 단위당 생산량은 증가했다.

10a(아르·100㎡)당 생산량은 523kg으로 작년(518kg)보다 1.0% 늘었다. 벼 낟알이 형성되는 7~8월에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여건이 양호한 영향이다. 지역별로는 9~10월 날씨 변화와 병충해로 생산량 편차가 있었다.

시도별 쌀 생산량은 전남(73만7000t), 충남(72만7000t), 전북(58만2000t) 순으로 많았다.

전남의 경우 작년보다 생산량이 0.8%(6000t) 감소했다. 전북은 6.3% 감소했으며, 경북(-2.0%), 경남(-1.7%)도 전국 평균(-1.6%)보다 감소율이 높았다. 강원(4.0%)과 충남(0.2%)은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늘었다. /김민석 기자 mskim@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크리스마스 준비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빌레로이앤보흐' 매장에서 다양한 크리스마스 에디션 식기류를 선보이고 있다. 빌레로이앤보흐 매장에서는 접시와 컵 등 식기 상품과 다양한 장식 소품 등을 오는 12월 10일까지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삼도농협, 영농폐기물 수거 봉사활동

삼도농협(조합장 오종선)은 14일 광산구 도덕동의 삼도농협 경제사업장에서 농가주부모임 회원들과 함께 영농폐기물 수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영농폐기물 수거 봉사'는 깨끗한 농촌을 가꾸기 위해 농협광주본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고성신 농협광주본부장과 오종선 조합장, 농가주부모임광주시연합회원 및 농협 임직원 등 25명이 관내 29개 영농회를 순회하며 5t 상당의 폐비닐을 수거했다.

봉사자들은 삼도농협경제사업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장을 배부하며, 영농부산물 및 폐비닐 등의 소각으로 인한 산불방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오종선 조합장은 "지속적인 영농폐기물 수거 봉사활동과 안내를 통해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가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거한 폐비닐 등의 수익금은 오는 12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재원으로 일부 사용돼, 관내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33.25(+29.49)
↑	코스닥	794.19(+19.77)
↓	금리(국고채 3년)	3.877(-0.002)
↑	환율(USD)	1328.90(+3.80)